

한독약품, 김영진 대표이사 회장 승진

한독약품은 3월17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영진(金寧珍) 대표이사 부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 선임했다.



신임 김영진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친 후 1984년 한독약품에 입사했으며 1996년, 2002년에 각각 사장, 부회장직에 올랐다.

창업주 전임 김신권(金信權)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 만료된 이환무 이사는 재선임됐으며, 신임이사에 Olivier Chameil, Jeremy Moulding, 한진수(사외이사) 3인이 선임됐다.

또 한독약품은 매출액 2345억원, 영업이익 286억원, 당기순이익 159억원 달성을 골자로 한 제무제표를 승인했으며, 주당 280원의 기말배당을 포함해 주당 430원의 현금배당을 최종 결의했다.

한편, 한독약품은 2006년 매출목표를 2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최종 확정했는데 연초에 발표한 매출목표 2500억원보다 10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2005년 매출액 2345억원과 비교하면 11% 증가한 수준이다.

한독약품 관계자는 “지금까지 Sanofi Aventis Korea가 판매해 왔던 항히스타민제 알레그라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자트랄을 오는 4월1일부터 한독약품이 판매하게 돼 매출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3/21>